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200회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 주요내용

주 제 :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한 사회안전망
발제자 :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일 시 : 2015년 10월 8일 오전 7시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요약 >

☞ 10월 8일 200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는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을 연사로 초청해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고용과 복지의 연계는 사회서비스를 중시하고, 맞춤형 원스톱 통합 패키지 서비스를 지향한다. 고용과 복지를 서로 연결하면서 복지수급자들에게 조금 더 자립심을 키우고,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원활하게 참여해서 궁극적으로는 일을 통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사회서비스 중심의 복지다.

■ 전통적인 사회정책에서는 계층(청년층, 장년층, 빈곤층)별로 표준화된 복지 및 고용 서비스를 그룹화하여 제공하였다. 최근에는 개인별·가구별 특성을 중시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하나의 문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그 원인을 해소해주기 위한 통합적인 패키지로 가고 있다. 이는 많은 선진국에서 입증된 바 있다.

■ 직장인 20%는 저성가자 위험에 놓여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자신이 어떻게 준비하고 적응해야할지 모르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변화의 방향을 알려주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저성가자로 퇴직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학교에서 성실히 공부를 잘한 사람이더라도 창의적인 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저성가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본인이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취약계층에는 심리상담, 치유, 건강 등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고용보험제도의 성과를 보면 여러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엄격히 해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고용과 복지의 연계 관점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발전방향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 촉진 기능을 본래 취지에 맞게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현재는 현금지급만 하고 취업알선 등 취업 촉진부분은 못하고 있다.

■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의 성과로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취업률이 62%로 높은 편이지만, 단기적인 훈련에만 그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상담사 한 명이 30여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 명이 2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관리하고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개인별·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복지 패키지 서비스로 변화 : 계층별 문제 단편적인 프로그램으로 해결 어려워 복합적인 접근 필요

- 고용과 복지의 연계 의미는 '고용 친화적 복지'와 '복지와 연계된 고용' 두 가지이다. '고용 친화적인 복지'는 복지 수급자들이 복지 수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급적 일을 통해서 자립을 하고 자아성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복지국가에서 복지개혁은 가급적 복지의존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은 아직 초기단계다. 복지수급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의무를 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상호의무와 여러 적극적 구직활동을 강조한다.

- '복지와 연계한 고용'은 직업 훈련이나 여러 가지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시급한 생계문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거나, 보육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말한다.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을 통한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다.

- 고용과 복지의 연계는 사회서비스를 중시하고, 맞춤형 원스톱 통합 패키지 서비스를 지향한다. 고용과 복지 연계는 각각의 복지 프로그램 또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다는 반성에서부터 출발했다. 고용과 복지를 서로 연결하면서 복지수급자들에게 조금 더 자립심을 키우고,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참여해서 궁극적으로는 일을 통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사회서비스 중심의 복지다. 현금 급여에 앞서 우선 사회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여러 복지 급여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고용과 복지, 다양한 보육 문제 등 연계된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 또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복지제도의 연계를 통해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복지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참여자들에 대한 자존감, 자아실현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전통적인 사회정책에서는 계층(청년층, 장년층, 빈곤층)별로 표준화된 복지 및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최근에는 개인별·가구별 특성을 중시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하나의 문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요인들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원인을 해소해주기 위한 통합적인 패키지로 가고 있다. 이는 많은

- 2014년부터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앞으로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예산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하지 않는다면 후손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가급적 복지수요 증가를 최대한 줄이고, 복지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 서비스 중심의 고용복지 연계로 가야 한다.

- 4 -

프로그램을 고용보험 틀 속에 들으로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였던 사람을 중심으로 운용되다 보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확대해 왔으나 아직 정착되지 못했고 미흡하다. 일반재정에서의 투자도 미흡해 노동시장정책의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고용과 복지의 연계 관점에서 고용보험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담당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현재는 현금지원만 하고 취업알선 등 취업 촉진부분은 못하고 있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누구든지 고용센터에 구직활동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을 진단분류하여 개별 상담을 통해서 취업 전략을 수립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통폐합하고, 자격 요건을 낮추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취업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건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많은데 대상으로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누구든지 오게 하고, 그 사람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는 취업 할 수 없고, 취업하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사후 서비스가 필요하다.

-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2009년부터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2년부터 청년층과 장년층까지 확대하였다. 현재는 유형1과 2로 구분하고 있다. 유형1은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구직자가, 유형2는 청년층, 중장년층 구직자이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의 서비스는 우선 사전단계로 취업장애탈인이 없는지 진단하고, 있다면 제거를 통한 취업의욕을 높이고 있다. 1단계는 진단, 의욕증진, 경로 설정을 하는데, 이에 참여하면 참여수당을 준다. 2단계에서는 6개월 정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3단계에서는 집중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취업에 성공한다면 경과시간별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3개월 동안 사후관리로 직장 적응 및 자립 지원을 한다.

- 고용센터와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협업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까지 고용센터에서 청장년층을 했고, 취약계층·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에서 했지만 올해부터는 반대로 고용센터에서 취약계층·저소득층을 담당하고 있고, 민간기관이 청장년층을 맡고 있다. 민간기관에게는 위탁비를 평균 100~140만원을 주는데 취업을 얼마나 빨리시키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의 성과로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취업률이 62%로 높아졌다. 하지만 한계로는 모집이 어렵다는 점이다. 요건이 까다로워 누구나 오게 하고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건을 기준으로 대상자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을 알선하고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해야 하지만 모집 과정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취업 알선은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고, 정규직은 모집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는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 또한 서비스가 경직적이다. 맞춤형 서비스는 유연해야 하지만 정부의 간섭으로 불필요한 서비스 및 훈련을 하게 한다.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필요 구비 서류가 많은 점 등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다. 이는 맞춤 서비스를 경직적으로 만들고, 행정적·기계적 맞춤 서비스로 만들고 있다. 앞으로는 모집 요건을 소득수준, 연령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집의 기회를 주고, 취업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취업문제에 따라 차등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불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적게 지원을 하는 형태다. 훈련부분은 훈련이 남용되는 부분이 있으며, 단기적인 훈련만을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상담사 한 명이 30여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 명이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지자체 통합형 고용복지+센터 취업실적↑, 협업 수준은 초기단계 : 워크넷에서 모든 고용·복지·교육·훈련·문화 관련 서비스 정보 검색신청 가능

< 서비스 대상별 공공고용서비스기관 현황 (2015.1월 현재) >

	고용부	다른 중앙부처	지자체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복지+)센터(86)	각 부처	지자체 일자리센터(289)
청년	고용(복지+)센터(86)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120)	
경력단절여성	고용(복지+)센터(86)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25)	보건복지부 (노인취업지원센터)	
장년	고용(복지+)센터(86)	보건복지부 (자활센터)	
기초생활수급자	고용(복지+)센터(86)	통일부 (하나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289)
장애인	고용(복지+)센터(86) 장애인고용공단 지사(18)	(복합주인 취업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	고용(복지+)센터(86)	보훈처, 국방부 (제대군인 취업지원센터 5)	
제대군인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금융채무자		해양수산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출소자			
선원구직자			

- 그동안 중앙부처 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복잡해 국민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인 고용복지+ 센터는 작년년부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달체계 혁신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의 기존 업무, 지자체의 일자리센터, 국방부의 제대군인 취업지원센터,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 등을 한 장소에 모아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 편의 도모 및 고용서비스의 효과 제고가 목표이다. 시범사업으로 작년 10개소를 운영했고, 올해는 20개소, 2017년까지는 70개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고용복지+ 센터의 취업실적은 전년대비 평균 23.7% 증가했다. 전국 평균 11.4%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고용센터가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다.

- 아직 기관 간 실질적인 연계와 협업은 초기 수준이다. 또 고용센터에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에서 복지로의 연계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복지에서 고용으로는 연계가 미흡한 수준이다. 복지수요자는 대부분 읍·면·동을

먼저 방문하고, 필요에 따라 시·군·구를 통한다. 우선 통일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장(長)으로 선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장을 통해서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고 일상불란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나이가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순환보직으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한 울타리 안에 있지만 서비스에서는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고용복지+ 센터 설치 이후에도 각 부처별로 다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온라인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고, 고용센터나 고용복지+ 센터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 이로 인해 많은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복지+ 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사람들은 성과가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그렇게 일을 할 인센티브가 없다. 성과를 내기 위한 체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 IoT기술을 고용서비스에 연계하면 서비스 대상자가 미리 상담예약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예약자의 위치를 파악해 상담원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은 고용정보원에서 개발 중이고 내년에 시범운영하려 한다. 현재 모든 서식이 오프라인 서비스를 전제로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에 맞춰서 단순한 서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스마트폰에 취약한 사람들은 내방해서 오프라인 서비스를 받도록 행정인력과 부담을 대폭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고용정보와 복지정보를 연계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고용정보와 복지정보를 하나의 스크린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고용정보원의 워크넷이 올해 들어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공공기관의 취업포털을 연계하고 있다. 민간취업포털 중 주요기관들과 연계하여 민간 기관에 입력된 여러 구인·구직정보도 볼 수 있게 하고, 워크넷에 있는 여러 구인 구직정보도 민간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자체별 따로 취업포털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워크넷과 연계하면 된다. 하루에 100만 명이 일자리 20만 개를 클릭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온라인과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까지 완벽한 하나의 스크린 내에서 모든 필요한 고용정보, 복지정보, 교육정보, 훈련정보, 문화 관련 서비스 정보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크넷 이용 취업자 수, 방문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0만 명이 방문했고, 작년 170만 명이 워크넷을 통해 취업했다. 올해는 200만 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중 모바일서비스가 전체 워크넷 서비스의 60%를 차지하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모바일 서비스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 앞으로 국민생활 기초보장 수급자들이 개별급여 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적극적 취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연결되어야 한다. 공적부조 수급자들,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고용서비스와 연계하니 기초수급자들의 자립 강화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의 고용·복지정보 종합 포털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관련 기관의 정보 연계로 검색부터 지원금 시뮬레이션, 서비스 이용, 신청, 상담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이 필요하다.

200회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고용과 복지연계의 연령 제한이 있는지? 임금피크제처럼 연령별 급여에서 차이가 있는지?

답변 연령 제한은 없다. 워크넷에 들어가면 복지와의 연계 파트가 있는데, 이곳에서 신청 가능하다. 취업은 임금수준, 성, 연령, 지역, 직종 등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검색이 가능하다. 이런 서비스는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질문2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많은데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없는 실정이다.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면 권장해주는 곳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센터에서 수급자에 대한 취업 지원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답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 적합한 일자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 사회에서는 처음 1~2달은 가급적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최대한 지원해주는 반면, 그때까지도 취업을 못하고 일자리가 없으면 임금수준을 낮추고, 직종을 바꾸고, 필요한 훈련을 권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많이 약하다. 지금 현재 11,000여개의 비교적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있으나, 이곳도 잘 안 가려고 한다. 현장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맡겨놓고 실업기간 내 활동강도 조절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같은 곳은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며 굉장히 강하게 일을 하도록 독촉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해고통보를 받으면 바로 다음날부터 바로 구직등록을 하도록 한다. 실업이 되지 않고 바로 다음단계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방법이 장기실업을 확 낮추는 역할을 했다. 뉴질랜드 역시 실업 후 한 달 이내에 37% 정도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창기에 집중적으로 서비스해서 취업하도록 도와준다.

질문3 고용복지 연계의 활동과정에서 예산편성 후 집행으로 들어갈 때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잘 어우러진 결과로 나와야 하지만, 예산을 먼저 고려하다 보니 집행에서 프로그램 실패에 대한 악순환 고리가 있는 것 같다. 선순환 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답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 많은 고용정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정책 가치 수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경우는 없다. 외국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현장에서 집행되기 위한 여건을 같이 갖추면서 진행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발표 하는 것으로 끝나 버리고 현장의 여건을 갖추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이해당사자와 공급자들이 준비해서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7~8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산이 확정되면 불과 2~3주 정도의 시간만 준다. 때문에 새로 참여할 사람보다 기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양식에 맞춰 내기에만 급급하다. 따라서 다양하고, 양질의 공급자들을 선

정하기가 어렵고, 6개월 내 효과가 나지 않으면 관심 밖인 것이 현실이다.

질문4 임금피크제를 통한 일자리와 청년들이 실제 원하는 일자리는 다르기 때문에, 결국 돌아오는 것이 없다. 이렇다보니 임금피크제가 방패막이나 협상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다. 일자리의 충돌이 없이 진짜 청년들이 들어갈 만한 일자리가 있는지?

청년들이 인턴을 했을 때 근로계약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고용자 측에서 해야 하는 계약서 등의 고용문제에 보완해야 할 것은 없는지?

답변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해소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성격에 따라 대치 혹은 보완관계가 되기도 한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은 분명한 대치관계이다. 청년이 늘어나는 만큼 채용을 못하며,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청년고용 신입채용을 막게 된다.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해소에 얼마나 고용 되는지가 핫 이슈인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임금피크제는 인원은 그대로인 현실을 감안해서 직무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퇴직을 안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인 재택근무, 시간 선택제, 유연한 근로시간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육아휴직 대신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게 되면 성과도 떨어지지 않고 아이 키우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턴들을 근로자로 볼 것이냐? 교육 훈련생으로 볼 것이냐? 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자와 교육생에 대한 정확한 법이 없다. 실제 고용행태에서 근로를 잘 했으면 근로자로 보고, 교육에 좀 더 중점이 있었으면 교육생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인턴 자체가 인턴십의 본질에 맞아야 하는데, 현재는 취업 못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턴 입장에서든 불만이 되고, 사업자 입장에서든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을 인턴으로 받아서 불만이 일어난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